전남도, '소재 · 부품 중장기대책' 수립

4개월간 회의…2030년까지 4251억 투입

기술개발 등 4개 전략 10개 추진 과제 구성

전남도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소재 · 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를 위해 4251억원 규모의 '전남 소재 · 부품 중장기 발전 대책 2030(2020~2030)'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장기 발전 대책' 수립에는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금속 · 화학 · 세라믹 · 레이저 등 4개 분야,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분야별 TF회의 20회, 총괄위원회 2회, 전문가 공청회, 정부 관계자 검토 등 다각적인 협의와 검증을 거쳐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았다.

참여 전문가 집단은 전남도, 전남T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재료연구소 등의 연구원이다.

발전대책에는 글로벌 리딩 소재 · 부품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 전략 다각화 등 4개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 인증제도인 소재 · 부품 전문기업을 2019년 17개에서 2030년에는 300개까지 양성하고, 38개 핵심 전략 품목 기술 개발과 기업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 대행 원스톱 지원 등 소재 ·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소재 · 부품 전문기업 정부 인증은 총 매출액 대비 소재 · 부품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력과 금융, 기술 개발 우대 등 3개 분야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135개 품목과 무역역조 품목 등에서 전남 소재 기업의 수요가 있는 43개 과제(R&D 38, 기반구축 5) 를 선정했다.

그중 4개 과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남TP와 전남대학교에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올해 1 · 4분기에 완료해 2021년 신규 국고 건의사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친환경 해양선박 경금속소재 · 부품 개발, ICT기반 전남 중소철강사 구조 고도화 기반 구축 등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에 수출입하는 6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접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1월 '전남 소재 ·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도내 소재 · 부품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오히려 소재 · 부품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며 "중장기 발전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남 소재 ·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광주恨 풀 마지막 기회…5 · 18진상조사위 적극 지원"

이용섭 시장 "올해 민주화운동 40주년…실체적 진실 규명 뒤따라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화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5 · 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과 광주형 성과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킬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화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5 · 18진상조사위 활동은 광주의 깊은 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3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진상조사위가 출범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오월 유가족, 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 속에 출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그는 "그동안 5 · 18의 온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청문회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수차례 정부차원의 조사가 있었다"며 "하지만 번번이 미완에 그쳐 5 · 18의 역사는 왜곡과 국민분열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참담함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5 · 18 민주화운동 제40주년"이라며 "5 · 18이 과거 속 광주에 머물지 않고 세계의 5?18로 도약해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5 · 18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 · 18의 역사가 진실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인권평화국은 5 · 18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과 진상규명조사위 인력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김영록지사 "한전공대 특별법, 사전 준비 필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7일 "한전공대 특별법이 21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되도록 준비하고, 전남형 미래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직원 모두가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벤처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직원들이 각자 업무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하겠다는 자세로 일하도록 실국장이 큰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SOC사업이나 큰 정책 결정은 도지사가 직접 하고 뛰어다녀야겠지만, 전략적으로 각 분야의 프로젝트는 실국장 관리와 지원 속에 직원들이 '내 책임'이라 생각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뛰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공대 특별법 추진과 관련, 김 지사는 "한전공대 설립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안이 바로 제출되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부터 전남 실정에 맞는 미래 전략사업을 서둘러 발굴해 관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구, 지원2동 물품공유센터 개소

광주 동구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가 최근 센터 1층에 물품공유센터를 마련 ·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광주시 '자치구 물품공유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꾸려진 물품공유센터는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1층 일부 공간을 활용해 생활공구, 캠핑용품, 행사용품, 농기구 등 121점의 생활용품을 비치하고 주민들에게 대여 중이다.

동구 주민과 동구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일일 대여료로 물품 구매단가의 2%를 받고 5일간 대여가 가능하다.

서구치매안심센터, 장롱 속 추억사진전 접수

광주 서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절기동안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묘목을 배분하고, 장롱 속 깊은 곳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동 제한된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스스로 묘목을 키우며 그 과정을 사진 또는 일지로 기록하고,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꺼내보며 인지자극 및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어르신들이 정성껏 기른 묘목과 추억이 담긴 사진은 3월 중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오매불망힐링파크에서 개최되는 '봄꽃과 함께하는 장롱 속 추억사진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남구, 한달간 No smoking 금연구역 지도 · 점검

광주 남구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월 한달간 금연구역 500곳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관내 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음식점, 게임 제공업소 등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지도 ·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도 ·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이뤄진다.

남구는 우선 이번 주 4개 점검반을 편성, 금연 지도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 6명과 담당부서 공무원 4명 등 10명을 투입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버스 정류장 및 음식점 등 200여곳에서 위반 행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19, 지자체 혁신 평가서 2년 연속 우수기관

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광역 ·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는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자 실시됐으며 전문가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3개 항목 14개 지표를 심사한 결과 북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북구는 지난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내 손으로 만드는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고독사 제로화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취약계층 대상 '사랑의 집수리 및 저장강박세대 청소 · 방역' 지원 등 다양한 혁신행정을 펼쳐왔다.

광산구 평동, 살고싶은 집 만들기 프로젝트

욕실시공 업체 이누스바스 광주점(대표 김민구)은 지역 내 저소득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 평동장과 '살고 싶은 집 만들기' 업무 협약을 통해 2년간 재능기부를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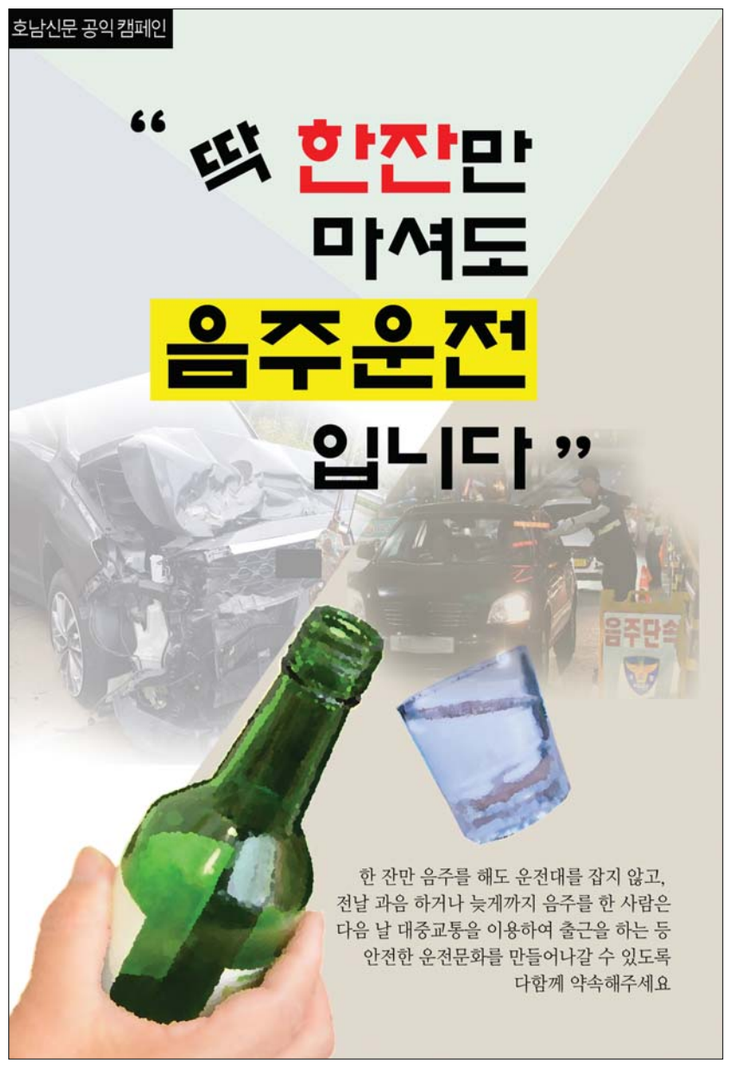
지난해 홀몸 어르신 가정 2곳의 욕실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이번 2차 사업에는 용곡마을 장애 홀몸 어르신 1세대와 평지마을 장애인 부자가정 1세대 가정의 욕실을 새 단장했다.

김민구 대표와 업체 직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1월 6일과 7일, 2세대의 타일 시공, 고장난 변기 교체, 세면대 설치 등 제반사항 모두를 무료로 제공하며 재능기부를 이어갔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